

HOA와 분쟁으로 구치소 구금까지 플로리다 탬파서...HOA 측 변호인 석방 반대도

플로리다주 힐스버러 카운티 탬파에서 주택소유주협회(HOA)와 분쟁으로 구금까지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 HOA와의 분쟁으로 구금된 그린. 사진=SNS

HOA를 관리하는 트로브리지 컴퍼니는 그린에게 몇 차례 위반 통지서를 발송했다. 처음은 잔디 문제였고, 이후 차고 문의 움푹 들어간 자국, 우편함의 곰팡이 등 사소한 항목들이 이어졌다. 마침내 HOA가 문제 삼은 것은 진입로에 주차된 화물 뱅이었다.

그린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각 사안에 대한 사진 자료와 설명을 제시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그에게 30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금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린은 즉시 시정에 나섰다고 주장했으나, 다음 재판 일정을 알리는 통지를 받지 못해 법원 출석에 실패했고, 결국 법정모독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그린은 딸의 치어리딩 연습이 끝난 뒤 귀가하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린은 민사 사건과 관련해 구금된 유일한 사례였다고 주장했다. 여섯 번째 날, 법률 보조원으로 일하는 시누이가 긴급 소송을 제

기했고, 새로운 판사에게 사건이 배정됐다. 그러나 HOA 측 변호인은 석방에 반대했다.

스탯슨 로스쿨의 폴 부드로 교수는 "민사 사건에서 구금 명령이 나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판사가 명령을 내렸다면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한다"며 법원의 지시 무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강조했다.

그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했다고 인정했으며, 이후 HOA 이사회는 새로운 관리 회사를 도입해 규정 집행 방식을 개선했다.

HOA에 소속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입주 전 정관과 규정을 꼼꼼히 읽고, HOA의 이사회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분쟁이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구금과 같은 최악의 사태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플로리다 주택의 약 45%인 390만 가구가 HOA의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HOA의 권한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세 아기 코브라 물어 죽여 인도 비하르서 기적적 생존



▲ 엄마 품에 안겨있는 고빈다. 사진=SNS

인도 북부 비하르 주에서 돌 무렵 아기가 맨손으로 코브라를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해 화제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타이라는 소도시에서 첫 이름만 공개된 고빈다는 집에서 놀던 중 코브라가 손에 감기자 본능적으로 뱀을 물어 죽였다. 아이의 할머니는 "아이가 손에 뱀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모두 달려갔지만 이미 뱀을 물어 죽인 상태였다"고 현지 언론에 전했다.

■ 병원 긴급 이송, 생명에 지장 없어

고빈다는 뱀을 문 직후 실신했고, 가족들은 즉시 마을 인근 1차 진료센터로 데려갔다. 이후 그는 베타아 정부의료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두바칸트 미슈라 병원장은 인디안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졌으며, 독성 증상은 미미했으나 실신 상태였기에 정밀 치료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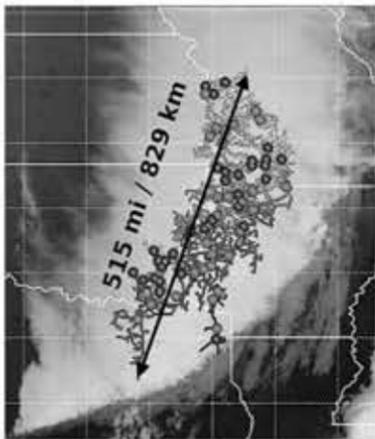
사우라브 쿠마르 박사도 타임스 오브인디아에 "적시에 치료한 덕분에 고빈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현재 아이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면밀히 관찰 중"이라고 전했다. GMCH 측은 아이에게 독 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해독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 인도, 세계 최악 뱀 물림 사망률

인도에는 약 300종의 뱀이 서식하며, 이 중 60여 종은 고위험 독사로 알려져 있다. 러셀살무사, 크라이트, 톱비늘살무사, 인도코브라는 '죽음의 빅4'로 불리며, 인도 내 뱀 물림 사망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0년 국제학술지 e라이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인도는 2000년부터 20년 동안 100만 명 이상이 뱀에 물려 사망했다.

텍사스서 캔자스까지 번쩍 515마일 간 번개 세계 기록

2017년 10월 22일, 대평원 지역을 강타한 대형 폭풍에서 발생한 거대한 번개가 세계 최장 거리 번개로 공식 인정됐다. 세계기상기구(WMO)는 해당 번개가 텍사스 동부에서 캔자스시티 근처까지 약 515마일을 가로질렀으며, 이는 세계 기록상 가장 긴 번개라고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 WMO에서 세계 최장 번개 기록으로 인정된 515마일 메가플래시 위성 데이터. 사진=WMO

WMO는 이번 기록을 메가플래시(megaflash)로 분류했다. 이는 한 번의 번개가 시작 지점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까지 뿔어 나가는 현상으로, 평균적으로 10마일 이하인 일반 번개에 비해 월등히 긴 길이다. 해당 번개는 자동차로는 약 8시간, 상업 항공기로는 약 90분이 걸리는 거리를 이동한 셈이다.

WMO 기상 및 기후 극한현상 위원회 위원이자 에리조나주립대 지리과학 교수 탠넬 서비니는 "매우 기묘한 현상"이라며, "우리가 이런 메가플래시를 발견하게 된 건 불과 10년 전으로, 번개의 시작과 끝 지점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면서부터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록은 당시 폭풍을 기록한 항공우주국(NASA)과 해양대기청(NOAA)의 위성 데이터를 재분석하면서 밝혀졌다. 당시에는 해당 기술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메가플래시의 전체 길이를 포착하지 못했지만, 현재는 위성 장비를 통해 정확한 번개 경로와 지속 시간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시니어 메디칼 무료 신청 및 관리

**65세 이상
메디칼 신청 도와드립니다.**

- 자산 폐지로 인한 메디칼 자격 쉬워져
- 인컴으로만 메디칼 신청 가능
- 배우자 중 한 사람만 싱글 메디칼 신청 가능
- Share of Cost 분담금 삭제 신청

**이제 메디칼 신청 / 메디칼 서류 관리를 하나로!
매주 목요일 부에나팍 오피스에서 상담드립니다.**

2025년

**시니어 메디칼
자산제한 폐지!**

***** 65세 이상 보유 재산 규정 없애 ***
인컴 조건만으로 메디칼 신청 가능!**



KCSS 시니어 서비스 213.220.6620 / 323.628.5376